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78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3년 5월 30일
4.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II.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37억 2천 1백만원에서 75억 4천 6백만원(△4.7%)이 감소한 1,761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세입예산	176,175,261	183,721,365	△7,546,104	△4.7%

나. 세출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72억 3천 3백만원에서 159억 3천 2백만원(2.7%)이 증가한 6,131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출예산	(×151,650,523) 613,164,886	(×149,977,427) 597,233,334	(×1,673,096) 15,931,552	(×1.1%) 2.7%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본부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837억 2천 1백만원 중 75억 4천 6백만원 (△4.7%)이 감액된 1,761억 7천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972억 3천 3백만원 중 159억 3천 2백만원(2.7%)이 증액되어 6,131억 6천 5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입예산	176,175,261	183,721,365	△7,546,104	△4.7%
세출예산	(×151,650,523) 613,164,886	(×149,977,427) 597,233,334	(×1,673,096) 15,931,552	(×1.1%) 2.7%

2.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837억 2천 1백만원 중 75억 4천 6백만원(△4.7%)이 감액된 1,761억 7천 5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 감(A-B)
계		176,175,261	183,721,365	△7,546,104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	4,761,183	4,718,739	42,444
	임시적세외수입	8,730,677	18,042,419	△9,311,74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859	2,094	12,765
	보조금	73,823,023	72,149,927	1,673,09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50,790	945,647	5,143
	소계	88,280,532	95,858,826	△7,578,294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조금	73,748,500	73,748,500	0
	지방채	10,000,000	10,000,0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229	35,039	32,190
	소계	83,815,729	83,783,539	32,190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079,000	4,079,000	0
	소계	4,079,000	4,079,000	0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75억 7천 8백만원 감소한 882억 8천 1백만원임.
-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문학의집 서울 지원’ 사용료 4천 2백만원임. ‘문학의집 서울 지원’ 은 본관과 산림문학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 산림문학관 건물은 기부채납¹⁾받은 시설이며,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에서 3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본관과 함께 관리하며 사용했음.

< 문학의집 서울 지원 공유재산 현황 >

구분	대지(㎡)	건물(㎡) 준공일	시설규모	최초 사용허가일	연간 임대료 (천원)	사용허가 갱신
계	1,794.2	1,088.33	-	-	94,061	-
본관	793.7	491.94 (1975.8.28.)	지하1층/ 지상2층	2001.7.12.	41,917 (토지, 건물)	2022.11.30.
산림 문학과	680.5	596.39 (2005.10.31.)	지상2층	2005.11.5.	52,144 (토지)	2026.3.26.
주차장	320.0	-	-	2004.6.15		2026.3.26

다만, 운영단체가 서울시 승인 없이 교회와 카페 등 불법 전대하여 사용하다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2022.6.22.)을 받았음.

운영단체는 행정심판을 청구(2022.7.8.)하여 기각(2023.1.17.)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소송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본관을 제외하고, 산림문학관과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편성한 것임.

- 임시적세외수입은 ▶서울도서관 자치구 보조금 반납액 5억원, ▶서울공예박물관 기업후원금 2억 5천만원,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건립 지연에 따른 기부금 △100억원 감액, ▶블루스퀘어

1) 산림문학관 건물은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의 예산지원으로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명의로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여 2005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무상사용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손해보험 가입 주체 변경에 따른 보험료 청구 △4천만원 감액 등임.

- 이 중 서울공예박물관 기업후원금은 2022년 3월 (주)고려아연 측에서 공예 전시회와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기부에 대해 제안을 하였고, 2023년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은 당초 계획 대비 건설자재비 급등에 따라 공사 기간이 증가(24개월→36.4개월)되었는데, 기부자(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측에서 착공 시(2024.2.) 기부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2023년 기부금액 100억원을 감추경함. 현재 기부금은 협약했던 총 300억원 중 150억원이 기부된 상황임.
- 블루스퀘어(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²⁾에 따라 조성된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부채납(2011.10.28.~2031.10.27.)되었음.

2023년 예산안 심의 당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2022.4.20.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손해보험료 4천 3백만원을 편성함.

다만, 2022년 11월 문화분부는 해당 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써

2)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보험 가입 주체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실시협약서 상 명시된 보험(기업휴지³⁾) 가입 불가능, 협약서 변경 등 제기될 문제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 이에 문화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2023.1월) “블루스퀘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적용을 받고, 협약서 제33조에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손해보험료 가입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감추경한 것으로 사업 주관부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09. 4.27.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05. 1.27. 개정)

·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제33조 (보험가입)」 ('07.11.29. 체결)

· 사업시행자는 보험에 직접 가입하여야 하고, 사업 기간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문학의집 서울 지원’ 시유재산 변상금 1천 3백만원으로, 불법 전대에 관한 변상금 9백만원⁴⁾과 퇴거 조치 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본관의 무단 점유 90일(2022.12.22.~ 2023.3.21.)에 대한 변상금 3백만원 등으로 편성된 것임.

3) 기업휴지보험은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사고로 생긴 운영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이름으로 가입해야 함.

4) 변상금 총 2천 6백만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회 분납 예정이며, 2022년 1회 납부 완료함.

- 보조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실제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사업 이관에 따른 감추경, ▶2023년 1월 확정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됨.

그중 한양도성 인왕곡성 성곽 보수 7억 6천 2백만원,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억 7천 8백만원,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4억 6천만원 등 17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동야행 1억 1천만원,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지원 3억원 등은 감추경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경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실제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1억 4천 3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천 2백만원 증가한 838억 1천 6백만원으로 ▶의정부지 정비 반납액 2천 5백만원과 ▶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7백만원임.

- 예산액 미편성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렵거나 징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음.

- 최근 3년, 문화본부 미편성 세외수입을 보면, 2020년 63억 3천 4백만원, 2021년 108억 7천 4백만원, 2022년 23억 9백만원으로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의 미편성 세입 징수액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 2020~2022 문화본부 미편성 세외수입 수납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장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장수율
2020년	14	6,333,989	6,113,158	220,830	96.5%
2021년	31	10,873,537	9,993,350	880,188	91.9%
2022년	18	2,308,578	948,625	1,266,233	41.1%

나. 세출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5,972억 3천 3백만원 중 159억 3천 2백만원(2.7%)이 증액되어 6,131억 6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출예산	(×151,650,523) 613,164,886	(×149,977,427) 597,233,334	(×1,673,096) 15,931,552	(×1.1%) 2.7%

-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사업은 35개 사업에 186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에 27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된 결과 총 159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보신각 타종행사 19억원, 광화문 책마당 운영 8억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51억원,
 -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58억원, 풍납

토성 복원(토지보상) 10억원, 연극창작지원시설 운영 등 문화 인프라 지속적 확충 등 시급성 있는 사업을 위해 87억원,

- 한양도성 인왕곡성 성곽보수 1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억원 등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증액 40억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억원, 서울공예박물관 디지털 전시 콘텐츠 제작 6백만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액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 상환 10억원,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지원 4억원 등 국비 감액 및 사업 취소·지연 등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A)	추경예산 (B)	최종반영 (B-A)	세부 내역
문 화 본 부 (총 계)			(x149,977) 597,233	(x151,650) 613,165	(x1,673) 15,932	· 35개 사업 1,8661백만원 증액 · 9개 사업 2,729백만원 감액
증 추경(18,661백만원)						
1	문 화 정 책 과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출연금)	41,268	41,428	160	· 천원의 행복 3회 추가(대극장화-6회) 121백 · 예술로 동행 2회 추가(29회→31회) 39백
2	문 화 정 책 과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등)	2,066	2,070	4	· 전기료 일부 증액 4백만원
3	문 화 정 책 과	뉴세종디지털아트센터 (시설비)	278	498	220	· 타당성심의 의뢰 수수료(LIMAC) 220백
4	문 화 정 책 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x1,372) 2,058	(x1,544) 2,315	(x172) 257	· (국비매칭) 용덕사 등 8개 사찰 보수정비 257백만원
5	문 화 정 책 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방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x120) 180	(x135) 203	(x15) 23	· (국비매칭) 성주암, 달마사 2개 전통사찰 23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A)	추경예산 (B)	최종반영 (B-A)	세부 내역
6	문화정책과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	290	290	· (신규) 행사 대행료 등 290백만원
7	문화예술과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 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 등)	5,805	11,607	5,802	· 민간위탁금 378백, 민간위탁사업비 29백, 자산및물품취득비 5,395백 · 스튜디오 장비 구입, 콘트롤부스 설치, 센터 운영비 등
8	문화예술과	연극창작지원시설 운영 (공기업경상적위탁사업비등)	511	1,398	887	·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운영비 등) 123백만원 ·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자산취득비 등) 764백만원
9	문화예술과	신당역 유희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시설비)	-	55	55	· (신규) 기술용역비 55백만원
10	문화예술과	문학의집 서울 지원 (시설비)	-	20	20	· 구조안전진단 용역 및 석면조사 등 20백만원
11	문화예술과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 (공기업경상적위탁사업비등)	278	401	123	·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운영비 등) 123백만원
12	문화예술과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운영 (공기업경상적위탁사업비등)	-	660	660	· (신규)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운영비 등) 430백만원 ·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인테리어 등) 230백만원
13	문화예술과	서울축제지원센터 (사무관리비)	264	284	20	· 코로나19 완화로 축제 증가에 따른 증액(120개→150개)
14	문화재정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지원보조)	(x26,742) 38,552	(x27,221) 39,378	(x478) 826	· (국비매칭)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매칭시비 편성
15	문화재정책과	국기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x92) 138	(x92) 138	· (신규) (국비매칭) 문화재청 공모 선정(종로구)에 따른 매칭시비 추경 - 국비 92백만원, 시비 46백만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16	문화재정책과	보신각 타종행사 (행사운영비)	464	2,404	1,940	· 광복절 타종행사 25백만원, 제야의종 타종행사 1,915백만원 증액
17	문화재정책과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행사운영비)	2,144	2,197	53	· 2022~2023년 계속 근로기간 인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34명) 퇴직적립금 부족분 53백만원 편성
18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20) 560	(x780) 1,365	(x460) 805	· (국비매칭)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및 정동야행 사업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매칭시비 편성(중구 193백, 종로구 612백) - 국비 460백만원, 시비 345백만원(국비40 시비30 구비30)
19	문화재정책과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0) 53	(x51) 89	(x21) 37	· (국비매칭)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증액 - 국비 21백만원, 시비 16백만원(국비40 시비30 구비30)
20	문화재정책과	승례문 파수익식 재현 (행사운영비)	439	451	12	· 2022~2023년 계속 근로기간 인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7명) 퇴직적립금 부족분 12백만원 편성
21	문화재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	789	789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789백만원
22	문화재관리과	한양도성 보수정비 (시설비등)	(x2,877) 4,110	(x2,925) 4,179	(x48) 69	· (국비매칭) 문화재 보수정비 확정통지에 따라 한양도성 인왕 봉고구간 및 백악 배불리구간 해체보수비 추가편성
23	문화재관리과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운영 (시설비)	(x-) 520	(x35) 570	(x35) 50	· (국비매칭)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 확정통지에 따른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안전보강 예산 추가편성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A)	추경예산 (B)	최종반영 (B-A)	세부 내역
24	문화재관리과	한양도성 인왕곡성 성곽보수 (시설비등)	(x-) -	(x762) 1,089	(x762) 1,089	· (신규) (국비매칭)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확정통지에 따른 한양도성 인왕곡성 붕괴구간 보수비 추가편성
25	문화재관리과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자치단체자본보조)	(x53,974) 77,106	(x54,639) 78,056	(x665) 950	· 지방채 재원 중 이자상환 잔액 감추경 분을 토지보상 재원으로 활용
26	문화재관리과	(도특)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	40	40	·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등 40백
27	박 물 관 과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행사운영비)	549	749	200	·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기간동안 전시를 통한 신진미술인 해외진출 확대(전시장소 조성 등 200백)
28	박 물 관 과	아트서울 활성화 사업 (시설비 등)	-	200	200	· (신규) 서울의 명소(공원 등)에 어울리는 예술작품 설치 (시설비 195백, 사무관리비 5백)
29	문 화 시 설 과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656	656	· (신규) (국비매칭) 23.8월 실시설계 준공 예정으로 설계비 656백만원 확보(국비 1,310백만원, 구비 655백만원) - 매칭비율(국비50 시비25 구비25)
30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	787	787	· 작은도서관육성지원 346개관 * 2백만원 · 프로그램 공모 25개구 * 2개관 * 1.8백만원
31	서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 (행사운영비)	2,700	2,990	290	· 야간시간대 독서문화 활성화 (달빛도서관 운영 등 290백)
32	서울도서관	엄마 북돋움 사업 (사무관리비)	2,114	2,545	401	· '23.9월 예산 소진 예상으로 401백만원 추경
33	서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2,000	2,500	500	· 운영시간 확대 등 행사운영비 500백
34	공예박물관	협력 프로젝트 (사무관리비등)	-	300	300	· (신규) 2023 민관 협력프로젝트 <KZ 프로젝트> 추진 - 시비 50백, 기부금 250백 반영
35	공예박물관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	6	6	· 디지털 전시 콘텐츠 제작 집행잔액 등 6백만원
감 추경(2,729백만원)						
36	문 화 정 책 과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500) 1,950	(x1,200) 1,560	(x△300) △390	· 영등포 문화도시 국비 감액(15억→12억)에 따른 감추경 - 국비 300백만원, 시비 90백만원 감액 (국50 시15 구35)
37	문화재정책과	정동야행 (행사운영비 등)	(x110) 278	-	(x△110) △278	· 사업수행기관을 중구로 이관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 전액 감액 ※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중구 193백만원 증액
38	문화재관리과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02	359	△143	· 한양도성문화재 유사사업과 통합 축소
39	문화재관리과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x1,326) 1,894	(x661) 944	(x△665) △950	· 23년도 지출 이자비용 확정에 따른 불용액 감추경
40	문화재관리과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10	1,410	△100	· 풍납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자치구 예산으로 대신 집행 결정
41	박 물 관 과	서서울 미술관건립 (감리비)	10,952	10,652	△300	· 내년 이월 예정사업으로 감추경
42	박 물 관 과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 (시설비)	14,508	14,208	△300	· 내년 이월 예정사업으로 감추경
43	문 화 시 설 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블루스퀘 어) 민간 투자사업 관리 (공공운영비)	43	-	△43	· 시설 보험가입 주체가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미집행 예정으로 전액 감추경
44	문 화 시 설 과	장원중 생활SOC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25	-	△225	· 장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업 반대이건 제출로 예산 미집행 예정으로 전액 감추경

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검토

1)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2023년 세종문화회관의 기정출연금은 412억 6천 8백만원이며, 이번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의 규모는 1억 6천만원임.

< 세종문화회관 추가경정예산안(안)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41,427,808	41,267,508	160,300	0.4%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41,427,808	41,267,508	160,300	0.4%

-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이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에 3천 9백만원 ▶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 1억 2천 1백만원 등 총 2개 사업, 1억 6천만원으로 시민공연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세종문화회관은 서울형 생활문화 구현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 증진 등을 근거로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본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추경 편성 요건⁵⁾에 비추어 볼 때 시급성은 부족해 보임.

5)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 변화 등

- 또한 두 사업 모두 22년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늘려왔으며 올해 역시 추경 편성을 통해 공연관람 기회를 늘리려는 바, 이는 세종문화회관이 사전에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시장 역점 및 시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번 추경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문화향유가 어려운 ‘문화약자’인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 인정됨.

①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

- 나눔연계공연 중 ‘예술로 동행’ 사업은 2016년부터 자치구 문화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예술단이 자치구와 약자 관련 시설(복지관, 병의원)로 직접 방문해서 공연을 펼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3천 9백만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음.
- 특히 올해 약자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노숙자 시설, 쪽방촌 거주자, 보육원)하고 자치구 공연에서도 총객석의 10%를 약자동행석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 서울시예술단 중심의 공연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검증된 예술단체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음.
- 이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기존 7회였던 자치구 공연을 2회 더 확대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2회 확대된 공연은 문화본부 문화진흥과의 요청에 따라 10.29.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구민을 위한 ‘위로와 희망

음악회(3.28.자, 4.7.자)로 기 개최하였음.

- 이처럼 이미 진행한 공연에 대하여 추경 편성을 통해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경 편성의 당위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문화공연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치유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선제 대응 성격의 행사 취지에는 동감하는바, 앞으로 문화본부와 세종문화회관은 사업운영 시 사업의 시급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에 맞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②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

- ‘천원의 행복’은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공연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천원의 관람료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1억 2천 1백만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음.
- 올해는 특히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하나로 자립청소년이나 어린이, 노년층 등 문화·사회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석’을 전석으로 확대 운영하는 공연을 4회 기획하였음.
- 이 사업은 ‘예술로 동행’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을 통해 기존 1회였던 대극장 공연을 6회로 확대하고 대극장 3층 관람객을 위한 실황 모니터 임차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 2023년도 ‘천원의 행복’ 공연 계획 >

(단위 : 천원)

연번	개최월	공연명	건(회)수	사업비(지출)
합계			10/16	500,000
1	3월	해설이 있는 <고잉 온 콘서트> ※ 올림푸스한국 후원/암경험자 지지를 위한 공연	1/1	13,860
2	4월	해설이 있는 <봄밤의 클래식 카페> ※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1	17,180
3	5월	빨간 코 광대야 놀자! <더 클라운> ※ 아동어린이 대상 1회차 전석 행복나눔석 운영	1/2	48,680
4	7월	너를 응원해! <선우정아x10CM> ※ 자립청소년 대상	1/1	60,240
5	8월	S-Classic Week ※ 신한은행 후원/신한음악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공연	1/4	7,960
6	8월	해설이 있는 <한여름 밤의 영화와 클래식>	1/1	65,750
7	9월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 ※ 문화소외계층 대상 1회차 전석 행복나눔석 운영	1/2	62,630
8	10월	열씨구나~ 흥이 난다! <김성녀의 마당놀이> ※ 노년층 대상 1회차 전석 행복나눔석 운영	1/2	68,000
9	10월	<나눔 콘서트>	1/1	76,700
10	11월	해설이 있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1/1	79,000

- 세종문화회관은 연간 공연계획을 통해 아동어린이, 자립청소년, 문화소외 계층, 노년층 등 다양한 ‘문화약자’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수행하고,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 송출을 고려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의 디지털화 확산에 대응하는 등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재단은 2007년부터 진행된 동 사업이 다른 극장들과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지속·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증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23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2022년 기준)’에 따르면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확대하려는 본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음.

2) 연말 시민 행사 확대 관련 사업

①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사업별설명서 989쪽, 신규)

② 보신각 타종행사(사업별설명서 1028쪽)

○ 문화본부는 1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추진방안 검토를 통해 연말 행사를 통합하여 홍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문화본부는 보신각 타종행사, DDP 서울라이트, 광화문라이트, 송현동 등 연말에 개최되는 행사들의 통합 추진을 위해 2023.4.24. 「겨울페스타」로 칭하며 총감독을 선임함.

- 총감독과 관련된 사항은 방침서나 계획 없이 먼저 선임되어 근거가 부족하고, 총감독의 보수(5천 5백만원 이내)는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 사업에서 지급될 예정임.

○ 또한, 2022년 9월 문화본부가 수립한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 대표 축제 총 8개(서울드림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 거리예술축제, 자치구 축제, 민간 축제, 서울예술축제, 인디음악 축제)의 예산은 중장기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몰시키거나 감액 편성되는 상황이므로 전반적으로 서울시 축제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1246호

「겨울페스타」

총감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겨울페스타」의 축제감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가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1. 위촉분야 및 위촉예정인원

위촉분야	위촉등급	위촉인원	위촉기간	담당부서	직무내용
겨울페스타	축제감독	1명	1년 이내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축제기획 및 운영 총괄 (공연예술·관광축제 기획 중심) - 메인테마 선정 및 다양한 겨울행사 통합하여 체계적 축제 추진 - 축제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 축제 추진 일정에 따른 축제추진 진행사항 총괄 보고 - 축제 콘텐츠 확장을 위한 협력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 협력(협찬)관계 구축 - 국내외 관람객 확대방안 제시 및 추진 (사업 홍보 마케팅 강화 등) - 대내외 보고회 및 설명회 브리핑 - 기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사업별설명서 989쪽, 신규)

- 동 사업은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신규로 2억 9천만원이 편성됨.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추경안>

(단위: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90,000	-	290,000
행사운영비	290,000	-	290,000

- 동 사업은 신년 카운트다운을 위해 보신각에서는 타종행사, 그리고 광화문광장에서는 다양한 빛 조형물 소재를 활용하여 세리모니와 점등식을 추진하는데, 이미 시행 중인 서울라이트 광화문(도시경관담당관), 빛초롱축제·광화문광장 마켓(관광정책과) 등과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임.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신규 행사 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 및 투자심사실시로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편성을 방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범위의 예산을 의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금번 디자인정책관에 증액(2억 7천 1백만원) 편성된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운영’ 사업과 목적이 동일한바, 결과적으로 실국만 달리하여 중복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문화본부와 디자인정책관 사업의 산출내역>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관
·대행사, 점등식, 세리머니 진행요원 인건비 81,000천원	·축제 기획 및 용역 운영인력 인건비 50,900천원
·기획 및 연출 20,000천원	·빛축제 미디어 파사드쇼, 체험형 콘텐츠 등 120,000천원
·점등식, 세리머니, 퍼레이드 추진 101,000천원	·연말 카운트다운 콘텐츠 제작 60,000천원
·홍보비 38,000천원	·축제 홍보 비용 30,000천원
·대행료, 부가세 등 50,000천원	·개막식 행사 개최 10,000천원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시행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전체 편성 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② 보신각 타종행사(사업별설명서 1028쪽)

- 동 사업은 보신각 타종행사를 대형 축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기정예산 4억 6천 4백만원 대비 19억 4천만원 증액된 24억 4백
만원으로 편성됨.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추경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404,246	464,058	1,940,188 (418.1%)
사무관리비	39,000	39,000	-
공공운영비	2,058	2,058	-
행사운영비	2,333,188	393,000	1,940,188
시설비	30,000	30,000	-

- 문화본부는 영국의 런던아이 뉴이어, 미국의 볼드롭, 시드니의 불꽃축제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연말 행사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겨울을 대표할 축제가 부재하다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함.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행사운영비 19억 4천만원은 보신각 종루에 조명 장치를 설치하고, 드론쇼를 실시할 계획임.
- 동 사업은 투자심사(2023.5.4.)에서 ▶다중운집을 대비한 안전관리 계획 구체화 필요, ▶행사 프로그램 적정성 검토 및 구체화하여 행사 규모를 조정할 것,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시민에게 역사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목적이 있으나, K-POP 공연,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드론쇼 등 이벤트와 홍보성이 집약된 행사성 사업으로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움.

3)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사업별설명서 993쪽)

- 동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및 문화예술계 미래 수요를 대비한 실감형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조성하고자 기정예산 7억 3천 4백만원 대비 58억 2백만원이 증액된 65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추경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536,677	734,262	5,802,415 (790.2%)
민간위탁금	1,112,346	734,262	378,084
민간위탁사업비	29,338	-	29,338
자산및물품취득비	5,394,993	-	5,394,993

- 동 사업은 남산창작센터 내 연습실 한 곳을 리모델링하여 스튜디오 시설을 조성하는 단년도 사업이었으나, 세 차례 계획변경을 통해 4개년 사업으로 수정되었으며, 총예산이 22억원에서 152억 8천 1백만원(594.6% 증가)⁶⁾으로 급격히 증액되었음.

- 그러나 남산창작센터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제로에너지건물 조성사업으로 선정(2020.6월, 예산 39억원)되어 기 편성된 스튜디오 조성사업의 설계 공모 기간 연장 등 각종 사전절차가 지연됨.
- 이후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물가 급등으로 공사 자재 수급이 어렵고 문화예술과에서 연동되어 추진하던 인테리어공사를 통합 발주하라는 공공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시설의 준공이 2023년 1월로 지연됨.
- 결과적으로 문화본부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계획변경으로 공사기간(5개년→ 3개년→ 4개년)과 예산(22억원 →73억 8천만원 → 94억 8천만원 → 133억 8천만원 → 152억 8천만원)이 늘어나는 등 정교한 사업계획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함.
- 장비구입은 1차적으로 5월 계약되어 11월까지 LED Wall과 크로마를 조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차 장비구입을 통해 XR(리얼타임) 스튜디오를 202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2023년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 사업 변경계획(문화예술과-7732, 2023.5.30.)’에서는 스튜디오를 2개실에서 1개실로 통합하여 공간을 크게 활용하며, 이와 연계하여 LED Wall의 면적(바닥 추가)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정됨.

- 다만, 동 사업은 2023년 예산안 심의 시 2023년 12월 개관을 예상하고 11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와 운영비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되지 않은 6개월 인건비는 조직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콘텐츠 제작 사업비로 인건비를 대체할 예정임.
- 금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위탁사업비 2천 9백만원은 컨트롤부스 설치 및 전기콘센트 증설공사로 당초 계획을 통해 제작된 컨트롤부스로는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어 다른 위치에 부스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한 비용임.
-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3억 9천 5백만원은 수탁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LED Wall(천장, 바닥)을 구입하고, 카메라, 지미집, XR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2024년 4월 개관일에 맞춰 실감형 스튜디오를 조성 완료할 예정임.
- 다만, 동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편성 시 LED Wall과 촬영 장비 등 구매를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과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임.
- 동 사업은 매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시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증액, 사업 기간 지연에 대해 지적받았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재차 계획이 변경되어 제출됨.

-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3월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할 때도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었고, 추경안이 제출되기 하루 전인 5월 31일이 되어서야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문가 부재로 매년 계획변경되는 등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이는바, 주관부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4) 신당역 유희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사업별설명서 1002쪽)

- 동 사업은 신당역 역사 내 유희공간을 다목적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해 신규로 5천 5백 만원으로 편성됨.

<신당역 유희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추경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5,000	-	55,000 (100.0%)
시설비	55,000	-	55,000

- 서울시는 1월 신년 직원 조례 시 「지하철역사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행정1부시장 주재로 동 프로젝트 추진방안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었으며, 문화본부를 포함한 관광체육국,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또한 추경안을 제출한 상황임.

< 지하철역 프로젝트 발표로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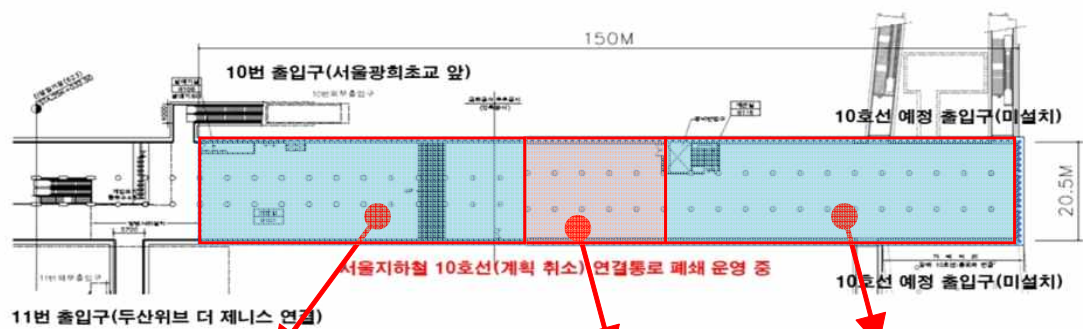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실국명	지하철역	예산	사업내용
관광체육국	여의나루역	146 280	·자문단 운영, 러너스테이션 개관 사전봉업 등 ·러너스테이션 준공 기념 러너축제 개최
미래공간기획관	시청역	93	·시민아이디어 공모 및 공모 시상금 등
디자인정책관	여의나루역	2,179	·러너스테이션(사물함, 신체측정기구 등 설치, 이 미지 조성, 정보디자인 개발 및 구현 등)

-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신당역 유휴공간은 매일 15,700명의 시민이 이동하는 지하철 10호선 미사용 환승 통로로 신당역 인근 DDP, 떡볶이타운 등 주변과 문화·관광 콘텐츠로 연계하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임.

《신당역 유휴공간 현황》

- 위 치: 6호선 신당역 지하 1층(미사용 환승통로, 이용객: 15,750인/일)
- 면 적: 3,075㎡(약 932평) ※ 길이 150m / 폭 20.5m / 층고 4.5m



1구역 (1,230㎡,
60m×20.5m)



2구역 (512㎡,
25m×2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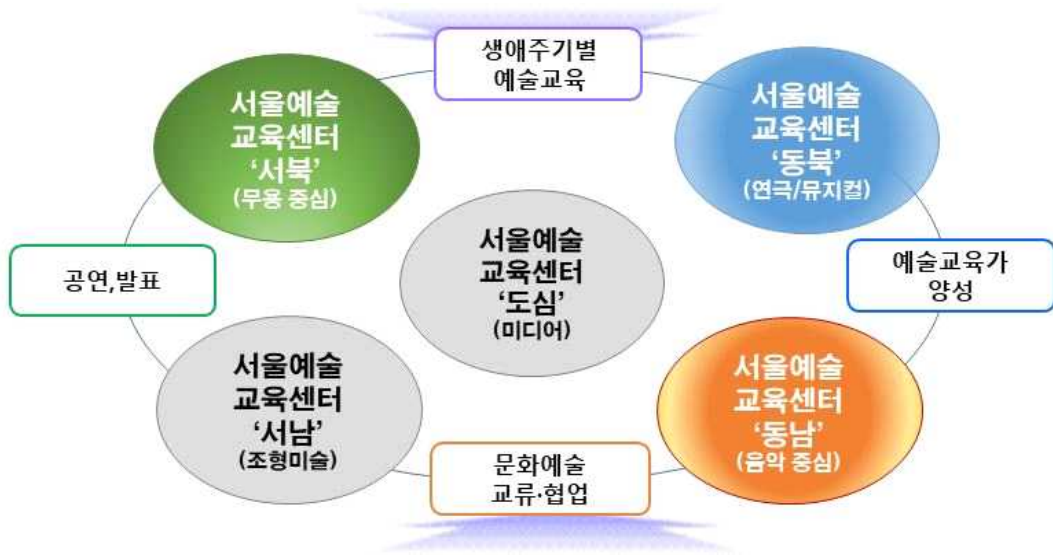
3구역 (1,333㎡,
65m×20.5m)

- 동 사업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데 공감하나, 안전 3대 분야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편성되는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 기조에 적합한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5)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운영(사업별설명서 1013페이지, 신규)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올해 신규로 개관하는 예술교육센터 2곳(서북권: 수색, 동남권: 반포)에 대한 시설 인건비·운영비를 공공위탁 사업자(서울문화재단)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임.
- 동 사업은 총 6억 6천만원으로 서북권·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인건비, 운영비 4억 3천만원과 사무기기 구입 및 인테리어비 2억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올해 ‘2023년 권역별 신규 예술교육센터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기 운영되고 있는 도심권(용산), 서남권(서서울, 양천구) 2개소에 더하여 올해 3곳(동북권: 강북, 서북권: 수색, 동남권: 반포)을 추가로 개소하려고 하고 있음. 특히 동 사업에 반영된 서북권은 무용중심으로, 동남권은 음악중심의 예술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추진체계 및 역할 >



- 202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살펴보면 ‘더 가까이: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생활밀착형 거점 지정(인증)제 도입, ▶문화예술교육 활용 공간 지원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현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예술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동 사업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중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 기반 강화’ 과제의 경우 광역-기초 간 협업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운영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서울시 역시 지역 문화시설·자원⁷⁾과 연계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7) 서북권: 서울무용센터(서대문), 서남권: 음악 문화지구(서초)

- 다만 기존에 문화본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왔던 4개의 권역별 서울생활문화센터⁸⁾도 본 권역별 예술교육센터와 역할이 중첩되어 사업 구성의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업의 공공위탁 사업자인 서울문화재단은 현재 본관을 제외한 16곳의 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서울문화재단을 공공위탁 사업자로 선정한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 ‘연극 창작지원시설 운영’ 사업까지 포함하면 향후 2023년 10월 기준으로 총 20곳의 공간을 운영하게 됨.
- 서울문화재단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교부받는 사업에 대하여 재단의 고유한 사업이 아니고, 예산과목의 특성상 공간을 운영하는 인력을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위탁 공간에 대한 인력관리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음.
- 그럼에도 문화본부는 고유의 사무를 지속해서 서울문화재단에게 공공위탁하려고 하는 바가 있었음.
- 2023년도 예산안심사 시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심사에서 서울문화재단이 공공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바 문화본부가 실행해야 하는 사업을 관성적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음.

8) 서교, 신도림, 체부, 낙원

6) 서울 아트위크 관련 사업

- ①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사업별설명서 1080쪽)
- ② 아트서울 활성화 사업(사업별설명서 1085쪽, 신규)

○ 문화본부는 2023년 9월 개최되는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트 페어와 연계한 ‘서울아트위크’를 통해 세계에 서울을 홍보하고자 두 사업을 편성함.

①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사업별설명서 1080쪽)

○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는 서울아트위크 기간에 송현동 등 일대에 특별전을 실시하고자 기정예산 5억 4천 9백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7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추경안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749,000	549,000	200,000 (36.4%)
행사운영비	749,000	549,000	200,000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행사운영비는 서울아트위크(9.1~9.10.)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9.1.~10.29.)를 연계하여 송현녹지광장에 신진 미술인들의 작품 2개를 설치하여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임.

② 아트서울 활성화 사업(사업별설명서 1085쪽, 신규)

- 아트서울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내에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2억원이 편성됨.

< 아트서울 활성화 사업 추경안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00,000	-	200,000 (100.0%)
사무관리비	5,000	-	5,000
시설비	195,000	-	195,000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는 서울 시내 공간 2~3개소를 발굴하여 조각, 회화, 설치미술 등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이벤트와 홍보를 할 계획임.
- 다만, 미술인을 활용한 조각, 회화 등 설치미술은 서울시 디자인 정책관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사업,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 구현 사업, ▶서울은 미술관 정책기반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와 ‘아트서울 활성화 사업’은 2023년 9월 개최되는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트페어와 연계하는 것으로 장소만 달리하고 설치미술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가 사업을 분리 편성한 것은 관련 사업 전체예산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지며, 동 사업은 수많은 사후 행정절차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

7)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 및 반환 사업

- 금번 추경에 편성된 국비지원 사업은 증액 10건, 국고보조금 반환 2건으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국비매칭 사업들은 국고보조금 확정통지(2023.1.31.)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예산으로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한양도성 보수·정비, 풍납토성 복원 등의 사업은 지속적인 이월로 인해 매년 우리 위원회 지적을 받고 있는바,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업 계획 수립으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국가보고금 증액 및 반환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추경금액	세부내역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x1,372) 2,058	(x1,544) 2,315	(x172) 257	· (국비매칭) 용덕사 등 8개 사찰 보수정비 257백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방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x120) 180	(x135) 203	(x15) 23	· (국비매칭) 성주암, 달마사 2개 전통사찰 23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x26,742) 38,552	(x27,221) 39,378	(x478) 826	· (국비매칭)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매칭시비 편성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x92) 138	(x92) 138	· (신규) (국비매칭) 문화재청 공모 선정(종로구)에 따른 매칭시비 추경 - 국비 92백만원, 시비 46백만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20) 560	(x780) 1,365	(x460) 805	· (국비매칭)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및 정동야행 사업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매칭시비 편성(중구 193백, 종로구 612백) - 국비 460백만원, 시비 345백만원(국비40 시비30 구비30)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추경금액	세부내역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0) 53	(x51) 89	(x21) 37	· (국비매칭)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증액 - 국비 21백만원, 시비 16백만원(국비40 시비30 구비30)
한양도성 보수·정비 (시설비등)	(x2,877) 4,110	(x2,925) 4,179	(x48) 69	· (국비매칭) 문화재보수정비 확정통지에 따라 한양도성 인왕 봉괴구간 및 백악 배불림구간 해체보수비 추가편성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운영 (시설비)	(x-) 520	(x35) 570	(x35) 50	· (국비매칭)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확정통지에 따른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안전보강 예산 추가편성
한양도성 인왕곡성 성곽보수 (시설비등)	(x-) -	(x762) 1,089	(x762) 1,089	· (신규) (국비매칭)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확정통지에 따른 한양도성 인왕곡성 봉괴구간 보수비 추가편성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656	656	· (신규) (국비매칭) 23.8월 실시설계 준공 예정으로 설계비 656백만원 확보(국비 1,310백만원, 구비 655백만원) - 매칭비율(국비50 시비25 구비25)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문화재 정책과)	-	789	789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78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공예박물관)	-	6	6	· 디지털 전시 콘텐츠 제작 집행잔액 등 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반납액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지 않으면 추가로 이자가 발생 되는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되므로 국고보조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8) 감추경 사업

- 금번 감추경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 상환액 확정과 국비 감액, 사업수행기관 이관, 유사 사업 통합, 이월, 사업 취소 등으로 총 9건 27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됨.

< 감추경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추경금액	세부내역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500) 1,950	(x1,200) 1,560	(x△300) △390	·영등포 문화도시 국비 감액(15억→12억)에 따른 감추경 - 국비 300백만원, 시비 90백만원 감액 (국50 시15 구35)
정동야행 (행사운영비 등)	(x110) 278	-	(x△110) △278	·사업수행기관을 중구로 이관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 전액 감액 ※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중구 193백만원 증액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502	359	△143	·한양도성문화제 유사사업과 통합 축소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x1,326) 1,894	(x661) 944	(x△665) △950	·23년도 지출 이자비용 확정에 따른 불용액 감추경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10	1,410	△100	·풍납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자치구 예산으로 대신 집행 결정
서서울 미술관건립 (감리비)	10,952	10,652	△300	·내년 이월 예정사업으로 감추경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 (시설비)	14,508	14,208	△300	·내년 이월 예정사업으로 감추경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블루스퀘어) 민간 투자사업 관리 (공공운영비)	43	-	△43	·시설 보험가입 주체가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미집행 예정으로 전액 감추경
장원중 생활SOC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25	-	△225	·장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업 반대의견(안전우려, 질적 저하, 학습권 방해) 제출로 예산 미집행 예정으로 전액 감추경

- 이 중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 상환’은 기정예산 18억 9천 4백만원 중 9억 5천만원을 감추경하는데, 이는 차입금 230억원에 대한 이자로 당초 이자 납부를 1년간 꾸준히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 1월에 모두 상환함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감추경하는 것임.
- 다만, 감추경된 금액 9억 5천만원을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 예산의 사용 용도는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정해져 있음.

- 이는 문화재청으로 반납하기보다 토지 보상의 조기 집행을 위해 증액하는 것이므로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목표 대비 실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정동야행’은 기정예산 2억 7천 8백만원 전액을 감추경하는데, 이는 사업수행기관을 변경(서울시→중구)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정동야행은 당초 중구청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봄, 가을 2회에 걸쳐 정동(덕수궁길, 정동길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임.
- 2018년 중구청은 동 사업에 대해 ▶서울시민의 참여율이 높고, ▶서울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대할 수 있으며, ▶시정사업인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사유로 서울시가 추진해 달라며 사업을 이관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에서 처음 개최한 평가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의 기틀을 마련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재야행 사업’을 통해 국비(2021년 8천만원)를 지원받는 등 서울 대표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중구청은 2022년 7월 새로운 중구청장 취임 이후, 4년 만에 태도를 바꾸어 ▶행사 명칭의 지적 재산을 중구청이 보유하고 있고, ▶지역성·문화재 야행 사업은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 재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

- 결과적으로 구청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 결정이 변경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울시가 사업의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와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2023년에 편성된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에서 건립되고 있는 문화시설은 총 10개 사업으로 이중 현재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8개임.
- 「지방계약법」에는 ‘장기 계속 계약은 계약이행에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로, 총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하되 각 연도에 편성한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분할계약’ 하도록 규정하고⁹⁾ 있음.
- 그러나 문화본부가 이번에 제출한 감추경 목록을 보면 문화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서서울 미술관건립’ 과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 등 2개뿐임.
- 결국 문화본부는 집행잔액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추경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 의지가 필요해 보임.

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문화본부 내 문화시설 건립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시설명	2023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현재공정	개관일
박물관과	서울시통합수장고 (문화유산보존센터)	23,961	4,230	17.7%	15.2%	'25년 상반기
	서서울미술관	17,313	3,532	20.4%	23%	'24.11월
	서울사진미술관	18,882	4,001	21.2%	50%	'24.10월
문화시설과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	6,489	1,478	22.7%	설계 공모준비	'30. 2월
	서울시립도서관 (서대문)	15,553	385	2.5%	기본 및 실시설계	'27. 6월
	서울시립도서관 (강서)	200	150	75.0%	타당성조사 의뢰	'30. 4월
	서울시립도서관 (관악)	500	500	100.0%	기본 및 실시설계	'27. 6월
	연극창작지원시설	20,923	4,199	20.1%	공사중 (80%)	'23.12월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1,426	2,442	21.4%	공사중 (84%)	'24. 3월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500	-	0%	설계공모 중단중 (사업부지미정)	'28. 5월

9) 박물관·미술관 기금 미적립

- 문화본부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고자 2022년 7월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 계획 (박물관과-24200)’ 을 수립하여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시행했음.
- 문화본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준 높은 작품 보유, ▶재원의 안정적 확보, ▶탄력적 자금 운용, ▶중요 문화자원 미래세대 전달 등을 위해 기금의 필요성을 제안했음.

- 기금은 2023년부터 5차 년도인 2027년까지 총 500억원을 조성하여 1차 년도인 2023년에는 224억원의 사업관리기금을 편성하고 그 중 50억원을 소장품 구입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음.

< 소장품 구입 기금 운용 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
수입	전입금 및 자체수입	224	88	81	63	44	500
지출	소장품 구입	50	75	100	100	75	400
연도말 규모		174	187	168	131	100	

- 이에 연말 시급하게 제정안의 의결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였으나, 사업부서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1차년도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검토 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 조성목표, 재원 조성 방안 마련, 기금의 조성 목표액 미달성에 따른 대안의 부재에 대해 지적한바 있음.
- 따라서 주관부서인 박물관과는 2027년까지 500억원을 마련하는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임.

10)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사업별설명서 1,113쪽, 신규)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은 서울시 내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7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권과 지식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787,000	0	787,000
사무관리비	5,000	0	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2,000	0	782,000

- 이 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1~3백만원¹⁰⁾의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히 시행되어 오다가 202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음.

< '22년 대비 '23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본예산	2023년 추경(안)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560,000	0	787,000

- 이는 2022년 서울시 평가담당관의 주요사업 성과분석 결과 낮은 이용자 수, 운영 및 관리 체계의 미비 등의 사유로 시 예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직접적 지원·운영 주체인 자치구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권고되었기 때문임.

1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정액·차등지급

《 주요사업 성과분석 결과 ('22.8.) 》

○ 낮은 이용자수, 관리 및 체계적 운영 미비 등으로 지속 지원 필요성↓

- (이용자) '21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기준, 市 내 작은도서관 904개 중 일 평균이용자 수가 10인미만인 도서관이 428개로 이용이 저조
- (당위성低) 이용자 필요가 아닌 구의원 요구·'1동 1작은도서관' 자치구 정책을 통해 작은도서관 급격히 증가('10년 548개 → '21년 1,114개)
- (관리부실) '19년 조사 결과, 증설된 작은도서관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안되고, 사업의 경우 예산의 공공성 저하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8조¹¹⁾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에 대한 시책의 강구·조성 지원 등 별도의 책무가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업무가 자치구에만 속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작은도서관이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평가담당관의 지적과 같이 작은도서관의 증가가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나아가 서울시는 운영이 미흡하거나 공공성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별도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운영이 부실한 일부 도서관을 들어 사업 전체의 효용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11)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조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 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제외 대상 》

- 시설기준: 법적기준(면적 33㎡, 열람석 6석, 자료 1,000권 이상) 미달, 현판 미부착, 외부에서 인식 불가능,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운영기준: 주5일 미만 개방, 1일 4시간 이하 운영, 영리목적 유료회원제 운영
- 장서기준: 특정 종교 서적 30% 이상
- 기 타: 영리목적 및 운영부실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경우

- 그러나 서울시는 내부 평가에 불과한 평가담당관 분석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올해 초 사업 폐지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 일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판정을 받고 추경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는 시정 방향성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함부로 저버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폐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임.

11)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사업별설명서 1,117쪽)

- 서울광장을 책과 문화가 깃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 27억원에서 2억 9천만원 증액된 29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990,000	2,700,000	290,000
사무관리비	50,000	50,000	0
행사운영비	2,940,000	2,650,000	290,000

- 서울시는 4월 23일 개막이래 책읽는 서울광장에 방문한 15만여 명의 시민(6.4. 기준)의 호응에 힘입어, 당초 계획에 없던 7, 8월 흑서기 야간(16~21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본 추경을 편성함.

《 책읽는 서울광장 확대 운영 계획 》

<p>□ 확대 운영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아주 특별한 밤의 야외도서관 ○ 기 간: '23.7.2.(일)~8.27.(일) 금/토/일 16시~21시(주 3일 총 26회)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시간대 적합한 독서문화 공간 환경 조성(빛의 서가, 조명 등) - 여름밤과 어우러지는 주제별 도서 북큐레이션 제공 - 야간 행사에 적합한 공연, 영화, 독서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 그러나 2022년도 제8차 투자심사 당시 책읽는 서울광장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은 ‘운영 기간 조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을 검토’ 할 것과, ‘민간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한다는 조건 하에 추진 판정을 받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임.

< 2022년 제8차(10월) 투자심사 결과 >

사 업 명	8. 책 읽는 서울광장 조성 및 운영
부 서 명	서울도서관
심사결과 및 내 용	<p>[조건부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기간 조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 민간재원 조달 방안 검토
사 업 비	2,950백만원 (전액시비)

- 추경예산안 29억 9천만원은 심의 당시 제안된 예산 규모인 29억 5천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며 사유 또한 운영 기간의 확대에 의한 것이어서 기존 심사 요건에 전면 배치되는 내용임.
- 한편,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데, 29억 9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추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민간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되지 못한 것은 물론, 사업 성격상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도 볼 수 없어 전반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려움.
- 서울시는 최근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과 같이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보다 대규모 행사에 더욱 주력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방향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12) 엄마 북돋움 사업(사업별설명서 1,121쪽)

- 엄마 북돋움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필요한 육아 관련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등 양육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상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21억 1천 4백만원에서 4억 1백만원이 증액된 25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엄마 복돋음 사업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515,108	2,113,740	401,368
사무관리비	2,291,608	1,890,240	401,36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3,500	223,500	0

- 서울시는 당초 책꾸러미 발송 사업 대상자를 4만 2,960명으로 산출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 월 3,580명을 기준으로 임신부의 수를 추산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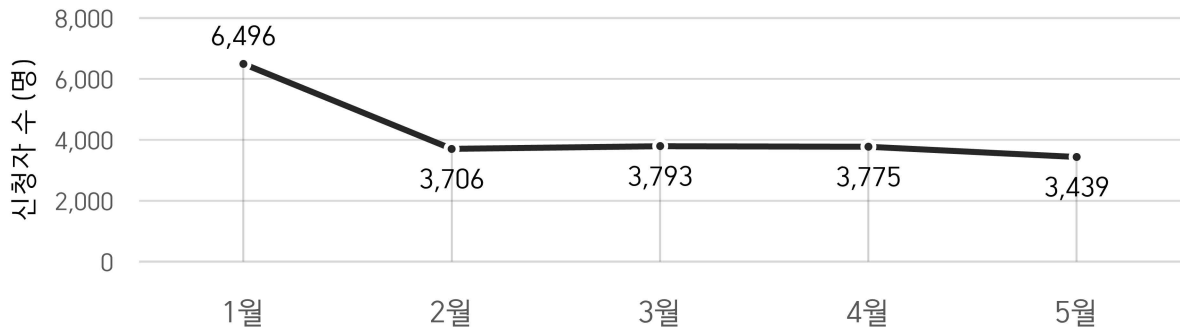
< 사업대상 산출근거 >

당초	42,960명('23년 임신부 수) = '22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월별 신청자 3,580명*12개월
변경	52,305명('23년 임신부 수 + '22년 임신부 중 신청 예상 인원) = 42,960명+9,345명('22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자 38,167명*24.48%)

- 그러나 해당 수치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임신 중인 임신부의 수가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2022년 임신부의 책꾸러미 신청 추이를 반영한 예산의 추가 반영이 필요해짐에 따라 본 추경이 편성된 것임.
- 사업 계획 당시 임신부 수에 대한 서울시 통계자료가 없었고 자치구에서 시 주도로 변경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정확한 사업 대상 추계가 어려웠던 점은 이해하나, 이 과정에서 2022년도 임신부가 추계에서 아예 누락되었던 것은 행정적 실책임.

- 한편, 2023년 책꾸러미 신청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5월까지의 책꾸러미 신청자 수는 2만 1,209명으로 추경의 사업 대상 목표치인 5만 2,305명의 40.5%에 달하지만, 앞으로 전체 신청의 35%를 차지하는 임신부의 신청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추경 예산이 연내 중 충분히 집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책꾸러미 신청 현황 >



13) 광화문 책마당 운영(사업별설명서 1,127쪽)

- 광화문광장 실내·외 도서관 추가 조성 및 운영 시간 연장 등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20억에서 5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이 편성되었음.

< 광화문 책마당 운영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500,462	2,000,000	500,462
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행사운영비	1,620,462	1,120,000	500,462
시설비	20,000	20,000	0
행사관련시설비	850,000	850,000	0

- 주요 변경사항은 ▶가도공간을 포함한 광장 전체로 야외 공간 확대, ▶6월과 9월(혹서기) 운영 시작 시간을 오후로 조정, ▶음악, 영화 행사 등 야간 문화 프로그램 추진, ▶실내마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간 연장 등임.

< 야외마당 확장(가도공간) >



《 2023년 광화문 책마당 운영 변경계획 》

- ① 야외마당 공간 확대
 - (기존) 육조마당, 놀이마당, 해치마당 → (확대) 가도공간
- ② 야간 문화 프로그램 <Saturday Night in 광화문 책마당> 확대 운영
 - 음악, 토크, 영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 ③ 실내마당 운영 및 서비스 확대
 - 실내마당 주7일 운영을 위한 용역인력 총원 ※ 7~8월 상시운영
 - 세종라운지: 10~19시(주7일) → 10~20시(주7일)
 - 해치마당: 10~17시(토·일) → 10시~20시(주7일)
 - 북큐레이션, 공간별 프로그램 기획 운영, 외국인 응대 콘텐츠 개발 등

- 그러나, 동 사업은 책읽는 서울광장과 마찬가지로 제8차 투자심사 심의에서 사업비 25억 3천5백만원을 제안하였다가 행사기간 및 규모를 축소하는 조건부 추진 결과에 따라 20억으로 조정되었던 사안이며 이를 심의 당시 규모인 25억원으로 재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공감하기 어려움.

< 2022년 제8차(10월) 투자심사 결과 >

사업명	17. 광화문 책마을 운영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심사결과 및 내용	[조건부추진] ○ 행사 기간 및 규모를 축소하여 시범사업 추진 ○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와 차별화된 콘텐츠 및 운영방식 수립
사업비	2,535백만원 (전액시비)

- 또한, 서울시가 추경안을 통해 6월, 9월 두 달간 추진하고자 하는 야간 문화 공연 <Saturday Night in 광화문 책마당 프로그램>은 음악, 토크, 영화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책읽는 서울광장 야간 운영 프로그램(7~8월)의 공연·영화·독서토론 프로그램 기획과 크게 차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더불어, 추경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서울시는 이미 6월 3일부터 광화문 책마당의 야간 운영을 개시하며 당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됨.